

투데이 칼럼

어느덧 취임 100일... 작은 변화의 축적, 도시의 꽃 피우다

완 연한 봄기운이 도심 곳곳에 스며드는 4월, 일산공원 꽃동산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준비하고 있다. 꽃꽂이 지는 아쉬움이 채 가지기도 전에 검벚꽃과 칠썹이 이어지며, 집주의 봄은 한층 더 깊어진다.

위대한 신화를 따라 오르면 시아가 열리고, 겹겹이 쌓인 꽃들이 도시의 풍경을 바꿔 놓는다. 머리위를 덮는 절벽의 꽃그늘과 검벚꽃 같은 잠시 걸음을 멈추게 하는 풍경이 된다.



국승철

전주시 완산구청장

#완산공원 꽃동산, 왜 특별한가

완산공원 꽃동산은 매우 특별한 공간이다. 대규모 예산이 아니라, 1970년대 한 시민의 손길에서 시작돼 10여 년의 시간 속에 완성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시는 2009년 이곳을 배양해 산책로와 전망대 등을 확충하며 시민에게 개방했다. 개인의 기억에서 출발한 이곳은 이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도시의 풍경이 됐다.



완산공원 꽃동산 전경.

155,000㎡ 규모의 꽃동산에는 검벚꽃과 칠썹, 연산홍이 시차를 두고 피어나며 4월이면 언덕 전체가 하나의 꽃밭으로 변한다. 이제 꽃동산은 '검은 공간'을 넘어 '머무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인산 문화공간과 어우러지며 꽃을 감상하는 시간이 머무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완산구 현장행정의 날.

완산만큼 더 스페이스와 서화동 예술마을, 워싱턴서관, 전주농림농간혁명 파랑새관·녹두관 등이 인산에 자리해 도심 속 근화 풍경을 이룬다. 올해는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꽃동산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장 관리 인력을 보강해 교통지도와 환경정비를 강화했다. 또한 개국과 광면 진입로 일대에서는 주

말마다 버스킹 공연과 플라멩코가 펼쳐지며, 꽃동산은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한층 풍성해지고 있다.

꽃이 핀다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긴 겨울을 지나 다시 시작하는 희망이며, 잠시 숨을 고르게 하는 여유다. 일산 꽃동산이 오랜 시간의 축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듯, 우리 행정 또한 보이지 않는 기초 위에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작은 변화가 쌓여 만드는 도시

건축이 보이지 않는 기초 위에서 완성되듯, 행정 또한 시민의 삶을 떠받치는 기반을 얼마나 충실하게 다지느냐에 달려 있다.

취임 이후 지난 100일은 그 기초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현정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작은 불편부터 하나씩 손보며, 시민의 일상에 담은 변화를 찾아왔다. 화려한 변화보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정과 편의를 높이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변화는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진다. 생활의 불편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순간, 행정은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든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행정의 본질이다.

완산 꽃동산이 한 시민의 손길에서 시작되어 도시의 풍경이 되었듯, 시민 삶의 변화 또한 작은 축적에서 비롯된다. 그 변화가 인산이 될 때, 도시는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완성된다.

봄이 오면 다시 찾게 되는 꽃동산처럼,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신뢰로 맺는 행정을 쌓아갈 것이다.

작은 변화의 축적이 결국 도시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든다.

사설

위안부 피해자 '뒤안길에 새긴 이름'

최근 전주 한옥마을 미술관에서 '조선인 일본군 성노예 피해 여성 13명의 이야기'가 전시됐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안세홍 사진작가와 함께 중국에 남겨진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3명의 삶을 담은 공동기획전 '뒤안길에 새긴 이름'을 선보인 것이다.

안세홍 사진작가와 역사가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훈과 검점프로젝트가 후원했다. 작가는 1990년부터 아시아 각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록해온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다.

그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20여년 간 중국 옌볜과 베이징, 상하이, 하이난, 우한 등지를 돌며 피해자 13명을 찾아 그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미발표 사진과 기록물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단순한 피해의 증언을 넘어, 전쟁과 식민의 폭력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낸 여성들의 생애를 조명한다.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기억의 편지' 프로그램은 관람객이 피해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작성하면 전시장 내에 함께 전시하는 참여형 코너다.

안세홍 작가는 "이번 전시는 낮은 중국 땅에서 고향을 그리며 살아야 했던 여성들의 일상과 기억, 그리고 잊히지 않은 목소리를 통해 전쟁 이후에도 계속된 생존의 시간을 조명했다"고 말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세부 일정과 참가 신청 방법은 전시 개막 후 역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유명례 작가의 개인전

유명례 작가의 개인전 1회 전시회가 4월 3일부터 9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기스라 2실에서 열렸다.

작가는 "지난 8년 동안 수채화가 가진 맑고 투명한 색깔에 매료되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 표현하는 시간이 제 삶에 커다란 위로이자 희망이었다"고 밝혔다.

작가는 전시를 준비하며 실감과 동시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선다고 했다. 오랫동안 묵묵히 길을 걸어온 선배들이 들려준 관심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은 작가로서 정진하는 데 더없이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명례 작가는 "꽃이 흩날리는 눈부신 4월, 따스한 봄빛과 함께 인사 드린다"며 "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묵묵히 응원해 준 선생님들에게 감사

를 감사함을 올린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원광보건대학교 예니메이션 전공을 했다. 개인전 1회, 단체전 23회에 참여했다. 전국은고미술대전 입선 및 특선, 전라북도미술대전 입선 및 특선을 했다.

현재 한국녹색미술협회 회원, 호미회 회원, 전미회 회원이다. 안디옥전 회원, 크리스찬 미술가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부귀, 고결한 습격, 말기, 보랏빛 축제, 6월의 신부, 친밀한 만남, 빛의 테러리, 모성, 행복, 화려한 외출, 시간의 문턱에서, 주홍빛 잠미 등이다.

화실은 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장기리에 있다. 유명례 작가의 제1회 개인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독자제언

최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악용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스미싱 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익산시 관내에서도 보이콧 시도와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금마파출소 관내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어르신들이 이러한 교묘한 수법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크다. 사기범들은 '정부 지원금', '긴급 생계비' 같은 달콤한 문구로 유혹하며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해 보낸다.

고유가 지원금 사칭 스미싱은 '사회적 살인'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점은 정부에서는 문자메시지에 링크를 넣어 발송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단약 수상한 문자를 받았다면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미 클릭했거나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된다면, 우리 경찰에서 권장하는 '시티즌 로난 앱'을 즉시 실행해 보길 권한다. 이 앱은 스마트폰에 숨겨진 악성 앱을 찾아내 삭제해 주는 역

할을 해준다. 또한, 평소 V3와 같은 공인된 백신 앱을 설치하고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다.

또한 우리 경찰이 현재 운영하는 전 기통산금용사기 통합 신고 대표번호인 '일상(13)을 구(9)하는 사(4)망들의 슬로건'을 가진 1394를 운영하며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끊임 없는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설마 내가 당하겠느냐"는 방심이 범죄의 표

적이 된다. 주변의 이웃과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수법을 널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공동체의 관심이 절실하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단순한 금전 갈취를 넘어,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명백한 사회적 살인이다. 사기범들은 '정부 지원금', '긴급 생계비' 등의 문구로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파고든다. 이에 우리 경찰은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완전 익산경찰서 금마파출소순경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내 · 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